

오스트리아 빈에서 뛰는 국가대표 풀백 이태석, 시즌 5호 도움

등록 2026.05.11 08:20:03



[서울=뉴스시스] 황준선 기자 =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, 후반 한국 이태석이 팀의 첫번째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 하고 있다. 2025.11.18. hwang@newsis.com

[서울=뉴스시스]안경남 기자 = 오스트리아 프로축구 아우스트리아 빈에서 활약하는 축구 국가대표 풀백 이태석이 시즌 5호 도움을 올렸다.

이태석은 11일(한국 시간) 오스트리아 빈의 알리안츠 슈타디온에서 열린 라피드 빈과의 2025~2026시즌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3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팀이 1-0으로 앞선 후반 15분 추가골로 2-0 승리를 도왔다.

이번 시즌 5번째 도움을 올린 이태석은 공격 포인트를 8개(3골 5도움)로 늘렸다.

2002 한일 월드컵 4강 주역인 이을용 전 경남FC 감독의 아들인 이태석은 지난해 8월 K리그1 포항 스틸러스를 떠나 빈에 입단 하며 유럽 무대에 진출했다.

이날 주전 풀백으로 선발 출전한 이태석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며 팀 승리에 이바지했다.

빈은 전반 9분 사넬 살리치의 헤더 선제골로 앞서갔다.

이어 후반 이태석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추가골을 잘 지키며 2-0 승리로 경기를 마쳤다.

2연승을 달린 빈은 상위 스플릿 6개 팀 중 4위(승점 29)로 올라섰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knan90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